

**NEAR사무국, 도내 거주 대학생 대상 제 1회 체험 연수 과정 종료(7.24)**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20.07.24.(금)**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대구일보	경북도·동북아연합,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	신문	대경일보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3	신문	경북신문	경북도·동북아연합, 대학생 대상 체험연수 운영... 첫 수료자 배출	
4	신문	경상매일신문	道-NEAR, 대학생 체험연수 첫 수료자 배출	
5	신문	경안일보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6	신문	일요서울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7	신문	경대일보	지역 대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큰 뜻'	
8	신문	경북연합일보	경북도·동북아연합,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9	신문	대구경북일보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10	신문	경북일일신문	경북도·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11	신문	日刊경북신문	경북도·동북아연합, 체험연수 '첫 수료자'	
12	온라인	메트로신문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13	온라인	뉴시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체허명수 과정 첫 수료자 배출	
14	온라인	스마트에프엔	경북도-동북아연합, 국제기구 인턴십 첫 수료생 배출	
15	온라인	CBN뉴스	경상북도,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16	온라인	GBN 경북방송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17	온라인	드림저널	경북도-동북아연합,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18	온라인	구미뉴스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19	온라인	KSPNEWS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0	온라인	다경뉴스	경북도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1	온라인	경북연합일보	경북도·동북아연합,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2	온라인	서프라이즈뉴스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3	온라인	MIMINT뉴스	경북도·동북아연합,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4	온라인	경북안전뉴스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5	온라인	군위넷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6	온라인	케이투데이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7	온라인	TGN 땡큐 굿 뉴스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8	온라인	국제i저널	경북도,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9	통신사	NSP통신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30	통신사	서울뉴스	경북도,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 대구일보

사람

## 경북도·동북아연합,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기사 입력 : 2020-07-23 15:30:59      최종 수정 : 2020-07-23 15:55      기자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23일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의 첫 수료자 11명을 배출했다.

이 과정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해 경북도와 동북아연합 사무국이 함께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다.

지난 13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체험연수 참가자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11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과 전문위원들에게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와 전문국가별 협력분야 등에 대한 생동감 있는 설명으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

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다.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mailto:kimmark@idaegu.com)

기자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권수진 기자 | 승인 2020.07.23 17:00

##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됐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권수진 기자** 5369k@naver.com

---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신문

[프린트하기](#) [닫기](#)

## 경북도·동북아연합, 대학생 대상 체험연수 운영… 첫 수료자 배출

서인교 기자 / sing4302@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3일(목) 19:46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url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28&idx=282985](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28&idx=282985)

Copyrights ⓒ경북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道-NEAR, 대학생 체험연수 첫 수료자 배출

각국 주재관들 팀별 멘토링 진행

안상수 기자 gsm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3일(목) 21:40



↑ 경북도와 NEAR가 마련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이수한 첫 수료자들이 23일 NEAR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경북도 제공

[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인턴십으로 진행된 이 과정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은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사무국 전문위원들은 국가별 협력 내용을 전달했다.

23일 경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사견 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씨는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김록채 NEAR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해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AR는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url :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70&idx=300888](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70&idx=300888)

Copyrights ⓒ경상매일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지역 7대 11명 학생 참여

글로벌 마인드 함양 이바지

김구동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3일(목) 20:59



[경안일보=김구동 기자]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시작됐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돼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진 뒤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는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

히 준비해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이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url : [http://www.gailbo.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88&idx=287798](http://www.gailbo.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88&idx=287798)

Copyrights ⓒ경안일보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요서울

HOME > 지역본부 > 경북권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 이성열 기자 □ 승인 2020.07.23 15:12

|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크게 이바지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일요서울 | 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됐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해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열 기자

대학생 체험연수과정  
동북아聯, 수료자 배출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을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권수진 기자

5369k@naver.com

## 지역 대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큰 뜻'

**경북도**·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을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

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 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해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 경북도·동북아연합,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국제기구 대학생 인턴십 운영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이바지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 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



첫 수료자를 배출한 **경북도**·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대학생 체험연수과정’.

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

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지난 23일 **경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

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강병찬 기자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  
글로벌 마인드 함양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



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해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2020년 07월 24일 금요일 003면 지방

### 道-NEAR, 대학생 체험연수 첫 수료자 배출

#### 각국 주재관들 팀별 멘토링 진행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인턴십으로 진행된 이 과정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

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각국에서 파견온 주재관들은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사무국 전문위원들은 국가별 협력 내용을 전달했다.

23일 경북도 개최한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사건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종문학과 전소현 씨는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 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해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AR는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최영열 기자

## 경북일일신문

2020년 07월 24일 금요일 002면 경북

### 경북도·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



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북도 개최

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 가지고 이어 청사건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종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日刊경북신문

2020년 07월 24일 금요일 003면 경북

### 경북도·동북아연합, 체험연수 '첫 수료자'

#### 미래 글로벌 인재 성장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23일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

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기대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종팔기자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메트로신문 문봉현 기자 | 2020 07 23 15:23:32



동북아연합 대학생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했다/사진=경북도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됐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문봉현 기자 [newsymun@metroseoul.co.kr](mailto:newsymun@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ニュース  
**NEWSIS** 지방 > 대구/경북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체험연수 과정 첫 수료자 배출

등록 2020-07-23 15:35:07



[안동=뉴시스] 경북도와 NEAR가 마련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이수한 첫 수료자들이 23일 NEAR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0.07.23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인턴십으로 진행된 이 과정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은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사무국 전문위원들은 국가별 협력 내용을 전달했다.

23일 경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사건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씨는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해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EAR는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에프엔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경북도-동북아연합, 국제기구 인턴십 첫 수료생 배출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크게 이바지

기사입력: 2020-07-23 23:13:31



동북아체험연수 수료생들[사진=경북도]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또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아울러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돼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해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3일은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청사 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다.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

## 경상북도.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020년 07월 24일 [cbn뉴스]



↑↑ 동북아연합\_체험연수과정  
의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

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bn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cbn뉴스

[프린트하기](#)[닫기](#)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크게 이바지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mailto:hyein2314@naver.com) 입력 : 2020년 07월 24일(금) 00:06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url : [http://www.ebyn.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46&idx=131721](http://www.ebyn.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46&idx=131721)

Copyrights ©GBN 경북방송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림저널 <http://www.newsdream.net>

## 경북도-동북아연합,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이바지

기사입력시간 : 2020/07/23 [17:49:00]

김영호 기자



▲ ⓒ 드림저널

[경북/드림저널]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 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또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해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임양춘 기자 lyc8769@hanmail.net

등록 2020.07.23 17:55

[구미뉴스]=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Copyright @2020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크게 이바지

기사입력시간 : 2020/07/23 [14:29:00]

양대영 기자 kspa@kspnews.com



경상북도청

[케이에스피뉴스=양대영 기자 kspa@kspnews.com]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은 동북아연합 사무국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됐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해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북도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크게 이바지

기사입력시간 : 2020/07/24 [07:03:00]

백두산 기자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 동북아연합 체험연수과정 © 백두산 기자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 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건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프린트하기](#) [닫기](#)

## 경북도·동북아연합,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국제기구 대학생 인턴십 운영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이바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3일(목) 18:30



↑↑ 첫 수료자를 배출한 경북도·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대학생 체험연수과정'.

© 경북연합일보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지난 23일 경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 지역 광역자치단체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강병찬 기자

url : [http://www.kbyn.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4&idx=111006](http://www.kbyn.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4&idx=111006)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ME > 로컬 > 경상북도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김주연 기자 승인 2020.07.23 14:29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크게 이바지



▲ 경상북도청

[서프라이즈뉴스]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은 동북아연합 사무국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됐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해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서프라이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연 기자

MIMINT 뉴스

31% VITASPA

검색



뉴스 &gt; 사회

B 이사배 이번엔 제니메이크업했

## 경북도·동북아연합,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대구일보 | 2020.07.23 | 신고

조스트네 네이버 티브이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23일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의 첫 수료자 11명을 배출했다.

이 과정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해 경북도와 동북아연합 사무국이 함께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다.

지난 13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체험연수 참가자는 대구 경북지역 대학생 11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마친 온 주재관들과 전문위원들에게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와 전문국가별 협력분야 등에 대한 생동감 있는 설설으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다.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아내가 진통할때 남편이 해야할일' [2]  
아이의 속마음을 알고싶다면?  
7세 아이 학원 그르기  
살이 텁어요 [2]  
아이의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아이, 김정표현 잘하고 있을까?  
아기 모기 물쳤을때, 이것만 기억해 두세...  
탁스키즈 헤지스키즈 파스텔몰 캠브스에... [3]  
새로운건 안먹어요

saramin  
**현재 상황에  
딱! 맞는  
효과적인  
채용관리**  
[MY채용플래너 보러가기 >](#)

스타 포토 | 인기 포토

2/2



2020년 서울365 티선소 디자  
[모가영, 만다지 빙 주얼로 종  
호텔에서의]

각신혜, 갈을 로맨  
[오토팔, 팔사, 20/201시즌  
직접 모습]

미호리, 화보사 대  
[화보사]

연예 | 스포츠 | 종합

- 1 청약총 '파천 푸르지오 펠라르테' 20%
- 2 [속보] '불륜 스캔들' 고마정 김제시의원
- 3 스마이컬 캇츠 'LOL 햄파언 신드라 코스프'
- 4 구로경 바비인형 몸매 보일 이재민 화제
- 5 신재민 유서 감격 신고 4시간만에 발견
- 6 [국제뉴스TV] 부산 아주대 이종석투기 대회
- 7 [현장 100세] 딸자 주름'과 마리오네
- 8 코로나19 국복 학생 임대인 재산세 감면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기사입력시간 : 2020/07/23 [16:01:00]

편집부



▲ 동북아연합\_체험연수과정 ◎

-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크게 이바지 -

경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 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종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군위넷 댓글 0건

① 기사입력 : 20-07-23 15:57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 동북아연합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

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내 블로그 | 이웃 블로그 | 블로그 흍 | Sense...

블로그

태그 | 카운트

## 코끼리뉴스 케이투데이 &lt;ktoday.co.kr&gt;

전체보기 21,361개의 글

목록|결기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코끼리 (byj8085)

+이웃추가

코끼리  
(byj8085)  
더 많은 기사는 인터넷 신문 케이투데이 ktoday.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크게 기여

[이전] [다음]

카테고리

활동정보

블로그 이웃 2,154 명  
글 코멘트 0 회  
글 스크랩 129 회

사용증인 아이템 보기



동북아연합\_체험연수과정(사진=경북도 제공)

태그 최근 | 인기  
경북도, 대구시, 국회의원, 포항, 안동, 경북도의회, 포항시, 한수원, 이철우, 개혁, 대구, 경북도지사, 경산, 경주시, 경주

▶ 모두 보기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이날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 건학과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1/ 171

코끼리님 이웃의 새글보기

#핫플예정

광고



**남구 블루피그**  
포항 호자  
삼겹살 맛집 블루피그!  
특오겹살 8,000



1/ 9



인쇄

**22**  
대구

파워링크 광고입니다

광고안내

**인플루엔셜 임원교육**

연수과정, 국내외 영향력 있는 강사선외 온라인 실시간 강연  
맞춤형 강사추천

**제주도 위탁교육용역전문JEC**

교육프로그램 교육설적 맞춤교육군의 만족도평가  
ONE-STOP교육연수 기업/대학/공직자교육 장애인/청소년캠프 맞춤형교육&강사선외

**연수과정 유니텔연수원**

안전교육연수 교원필수! EBS 영상으로 제작된 15시간 자격증 연수 단체 활동

이 블로그 전체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경북도, 지역산업육성 최우수 인정 국비 15억 확보

경북특화작곡 산학연 협력 수출경쟁력 높인다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3시간 전

대구 경북 신규 확진자 0명 대구 20일째 지역감염 0명

포항 관광홍보전문가 SNS 트립카스터 모집

&lt; 이전 다음 &gt;

▲ TOP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크게 이바지

조광섭 기자 dg@tgnews.co.kr

등록 2020.07.24 10:15:58



(TGN 경북)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 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 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 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 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 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 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 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인쇄하기](#)[인쇄하기](#) [창닫기](#)[HOME](#) [사회](#) [일반사회](#) [경상북도](#)

# 경북도,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국제기구 인턴십 통해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 발판 마련

장혜진 기자

승인 2020.07.24 10:24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 수료자들과 김옥채 사무총장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장혜진기자]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ij@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 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2020-07-23 15:53, 조인호 기자 [XML:KR:1903:자자체/정당]

#경상북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대학생 체험연수과정 #계명대학교 #동국대학교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크게 이바지



(사진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

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 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 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해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뉴스통신

HOME > 전국 > 대구·경북

# 경북도·동북아연합, 제1기 체험연수과정 첫 수료자 배출

☏ 김영미 기자 | ⓒ 승인 2020.07.23 15:17

국제기구 인턴십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크게 이바지



【 서울뉴스통신 】 김영미 기자 =경상북도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의식 함양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체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첫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체험연수과정(인턴십)은 동북아연합 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환영식(OT)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 최대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인 NEAR의 설립과 기능,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다.

사무국 전문위원과 각국에서 파견 온 주재관들이 담당업무에 대해 팀별 멘토링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특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으며,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어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23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경북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이어 청사견학과 하회마을을 탐방 했다.

연수 과정에 참가한 동국대 중문학과 전소현 양은 "졸업 후 취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기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김옥채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자의 반응이 좋아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연수와 12월 방학 기간에 개최될 제3회 연수도 철저히 준비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경주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미 기자 snakorea.rc@gmail.com

---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